

세계 수영 최대 이벤트... 1만2000명 손님맞이 준비 순항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9일~8월16일)가 광주에서 열린다.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함께 단일 종목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메이저 대회다. 전세계 200여개국이 대회를 TV중계하는 등 세계인들이 광주를 주목하는 만큼 '문화·스포츠 도시' 광주의 브랜드를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대회 유치 이후 착실하게 개최를 준비해왔다. 조직위는 2016년 8월 30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35명의 인원으로 사무국을 꾸렸다.

특히 조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 분야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다양한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수영대회 자문위원회도 오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국비확보와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2016년에 국비 20억원, 2017년 49억원을 확보했고, 총 사업비 확정 작업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들과도 2차례 접촉을 갖고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개최 의지를 전달해 FINA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 홈페이지도 조직위 출범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해 국문 홈페이지는 오픈

을 예산 49억 확보...중앙 정부·FINA 긴밀 협력
자문위 다음달 출범...숙박·교통 인프라 구축 총력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전경.

(www.gwangju2019.com) 됐으며, 영문은 FINA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과 엠블럼, 마스코트 등 시각상징물은 올해 1월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FINA의 승인 과정을 거쳐 슬로건·엠블럼·마스코트가 공식 확정되면, 광주 수영대회 홍보 및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후원기업 유치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200여개국 68억명이 TV로 대회를 시청하고, 중계시간만 6000여 시간에 달하는 등 상업적인 가치가 큰 대회임을 부각시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낼 방침이다.

광주시에는 수영대회지원본부가 설치돼 대회준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시

차원의 대회 준비를 위한 숙박, 교통, 식음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 7월 19일 제18회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경기장 장소는 남부대학교 등 총 5개소로 결정됐고, 선수촌은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성 높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 신설을 억제했다. 특히, 경기장 시설 분야는 FINA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관람석 규모를 주경기장의 경우 예초 1만5000석에서 1만1000석으로, 나머지 경기장은 5000석에서 3000석으로 축소했다. 경기장은 모두 5곳으로 남부대 주경기장과 장성동 등 2개소는 관람석 확충 등 리모델링 후 사용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사업비 절감과 사후관리비용 등을 감안, 임시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연과 다이빙 경기가 개최되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현재 3290석인 관람석을 1만1000석 규모로 증축하고, 향후 운영실 확장과 함께 다이빙 지상훈련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리는 장성호에는 2000석 규모 관람석이 마련된다. 임시 시설은 싱크로나이즈 수영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운동장, 수구경기가 열리는 진월테니스장,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광주 시청 문화광장 등 3개소에 각각 설치된다.

경기장 개·보수 등 시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25억원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며, 2019년 3월까지 시설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수영대회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 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우선, 개폐회식 및 수영대회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지원과 자문을 해 줄 '문화행사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단발적인 문화행사가 아닌 개최도시로서의 정신과 대회의 이념을 반영한 장기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행사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광주발전연구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생산 유발효과 2조 4000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4000명 등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회 개최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관광 접목 ‘남는 대회’ 만들 것”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문화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고 세계인들이 광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부각할 것입니다.”

조영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문화예술 자산이 풍부한 광주에 스포츠 문화를 접목해 문화와 힐링,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도시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수영선수권 대회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행사이니만큼 광주를 알리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회 개최효과가 지역경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속있는 대회를 치르겠다”며 “대회준비 과정에서 형식과 허례허식을 철저히 배격하되 자원을 재할용하고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으로 ‘남는 대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선수권 대회의 경우 기록향상을 위해 최적의 경기여건을 갖추는 게 지향점이다. 조직위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대회는 마스터즈다. 대규모 동호인단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지인들을 동반하는 이들은 출전 선수이자 광주에서 지갑을 열 관광·문화의 소비 주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홍보전략을 펼쳐 유럽을 비롯한 각국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터즈 참가자 등을 겨냥해 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 총장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부대에서 수영대회 개최의 의의 효과 등에 대해 강연하는 등 홍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시민들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회 개최가 지역 경제는 물론 광주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U대회에 참여한 숙련된 자원봉사자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민의식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또다른 자산입니다.”

조 총장은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미 통일부에 공문을 보내 북한 선수단 참가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조 총장은 “조직위의 2단계 확대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직위를 꾸려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사진=최현배기자 choi@

프로·동호인 모두 즐기는 29일간의 축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29일간 열린다.

모두 207개국에서 최대 1만2000여명이 참가하며, 광주 남부대와 진월테니스장,

광주시청, 장성호 등에서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수영 등 모두 6개 종목이 개최된다.

7월 19일~8월4일(17일간)까지 수영선수권대회가, 8월 5일~16일(12일간)은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모두 6개 종목에서 75개 경기가 열린다. 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참가자 나이를 5세 단위 그룹으로 나눠 경기를 하고 메달도 그 결과로 정해지는데 통산 700여개에 이른다.

FINA 선수권대회는 17일, 마스터즈선

수권대회는 12일간 열리기 때문에 한 달 가장 지루한 수영 축제가 광주에서 벌어진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그동안 16회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대한민국 광주가 3번째 개최 도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시 에너지밸리

나주시의회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산림조합 LG화학나주공장

의장 김판근 교육장 오인성 조합장 강희식 공장장 송희윤

광주일보 65 since 1952